

여전히 위험한 일터... 광주·전남 산업현장 '경고등'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광주·전남 산업현장은 여전히 중대재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하청과 소규모 현장에 위험이 집중되고 안전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총 50건으로, 61명의 사상자(사망 54명·부상 7명)가 발생

지역 산업재해 매년 증가... 하청·소규모 현장 집중 안전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 "예방 시스템 필요"

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14건, 2024년 2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고의 상당수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33건이 하청 현장에서 일어났으며,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 10건, 깔림·뒤집힘 6건, 감전 5건, 폭발·파열 3건 등으로 집계돼 예방 가능한 사고

등록 노동자 등이 통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지난해 광주 건설업 사망사고의 65.7%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미만 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는 여수·광양·대불 등 국가산단 38건·41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과 미

등록 노동자 등이 통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지난해 광주 건설업 사망사고의 65.7%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미만 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는 여수·광양·대불 등 국가산단 38건·41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과 미

등록 노동자 등이 통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지난해 광주 건설업 사망사고의 65.7%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미만 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는 여수·광양·대불 등 국가산단 38건·41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과 미



백세건강 걷음학교 28일 광주 서구청 들불마을에서 열린 백세건강 걷음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올바른 걷기 방법 교육을 앞서 사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하청사 대표 징역·벌금형

법원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구축... 관리·감독 소홀"

광주지법이 사내 하도급 공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하청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청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원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금형업체 대표 B씨(65)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해당 법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또 사고 당시 과실이 인정된 필리핀 국적 노동자 C씨(53)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5월27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비 침투로 사망한 50대 여성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원청 업체가 공장 일부를 임대해 운영되던 사내 하도급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로봇 설비의

방호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조작부 잠금장치나 접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거 처벌 전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 피해자 과실 및 도급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339억 게임머니 불법 환전... 범죄 일당 체포

전남경찰, 4명 구속 6명 입건... 152억 추징보전

전국 500여개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한 뒤 339억원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공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 설치·관리 담당, 게임머니 충전·환전 담당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중간유통책을 통해 전국 성인PC방 500여개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 5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계좌를 추적해 이들이 피사방 업주·이용객에게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339억원 중 15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성인피사방 업주·중간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알박기로 역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토지 수용 보상이 끝난 개발사업 부지에서 허위 입자인을 내세워 '알박기'를 하고, 역대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부당이익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71)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3년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허위 입자인 행세를 한 공범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충남 천안의 한 도시계획 사업시행 지구 개발사업과정에서 부지 내 건물주 B씨와 짜고 토지 보상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입자인 2명을 모집하고, 각종 공사 방해 행위를 벌여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주 B씨가 이미 받은 토지 보상금에 이적하며 불만을 표하자, 공사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입자인 모집 등을

제안·알선했다. 허위 입자인들은 공사 현장 주변에 무단 주차를 하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준공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서로 공모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시행 시행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정해진 시일 내에 사업 시행을 마쳐야 하는 개발업체의 절박하고도 공박한 상태를 이용해 합의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에고합14 반공법위반 피고인 신지우

위 피고인은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중량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4월 16일
판사 김용규
판사 김민지
판사 최영우

http://in-point.kr
1%부족할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실내·외 테리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업 | 3D 영상 · 모델링 / 조인도
육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동 53 (신인동, 2층)
디에스엔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산동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Printing
Promotional item
AD
Design
NACOS
PR
Advertisement
Solution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가 있으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학 자초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룡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